



글. 이상정
/우림교역대표 · 한화합이사/

뒷간과 화장실 미학

변조의 개량과 화학비료

1897년 공공변소의 청소를 1일 1회로 정하여 실시하였고, 메이지 33년(1900년)에는 '청결 보존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변소를 지을 때에는 그 구조와 도면을 첨부해서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완성되었을 때에도 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다. 1917년에는 '진개, 하수, 칩청 취급 규칙'이 제정되어 분뇨를 운반하는 자들도 규제를 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변소를 '칙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1926년에 이르자 일본의 내무성은 6년간이란 긴 시간과 막대한 경비를 들여 소위 후생성식 개량 변소를 발표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국민들의 기생충 감염이 큰 문제였는데 개량 변소를 개발, 보급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생성식 개량 변소의 기본적인 원리는 분뇨 자체의 자정 작용에 의한다는 것이었다.

즉 변조를 몇 개(통상 3개)로 나누어 그 밑에 서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고 각 변조에서 다음 변조까지 약 3개월만에 저질로 밀려가게 한다.

그렇게 분뇨가 마지막 변조에 이르기까지 부패, 분해, 액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뇨 속에 포함된 병원인 미생물이나 기생충란이 제거된다는 원리였다. 물론 마지막 변조의 분뇨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소는 사실 미국의 록웰 러 재단이 자금을 내어 만든 켄터키 변소를 개량한 것이었다.

켄터키 변소는 변조를 두 칸으로 가르고 첫 번째 변조의 분뇨가 부패하면 가운데 칸막이 밑으로 밀려가게 되고 두 번째 변조 밑에는 관이 땅속에 묻혀 있어 분뇨의 액체 성분은 이 관을 통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변조 밑에는 찌꺼기가 남게 되어 결국 이를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므로 국토가 좁은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런 지하 침투식의 화장실은 환영받지 못했다. 또한 분뇨를 비료로 이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변소는

도입되지 못하고 일본식으로 개량되었던 것이다.

그후 일본 정부에서는 후생성식 개량 변소를 각지에 보조금을 주어가며 권장하였다. 그 결과 기생충의 기생율은 줄어들었지만 개량 변소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사용하는 화장지의 문제였다.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휴지가 지금처럼 부드러운 화장지였을리가 없었으므로 신문지나 짚에 의하여 변조 밑의 통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 문제는 분뇨가 얼어버리는 문제였다. 추운 지방에서는 분뇨가 얼어 다음 조로 흐를 수 없었다. 세 번째 문제로는 비료의 절대분을 분뇨에 의지하던 당시 일본의 농부들은 3개월이나 되는 분뇨의 자정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따라서 농부들은 완전히 자정되지 않은 분뇨를 중간 조에서 퍼내어 비료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또 하나의 분뇨 분리식의 변조가 고안되었다. 이것은 대변과 소변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화식변기의 앞과 뒤에 따로 구멍을 낸 것이었다. 오줌은 앞의 구멍에 연결된 관을 통해 별도의 항아리에 모으게 되어 있었다.

이는 회충 구충 등 보통의 기생충란이 대변으로 나오는데 착안한 것으로 기생충알이 들어있는 똥은 뽕나무 밑이나 산에 묻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소변은 논밭에 뿌리도록 했다. 오줌은 비료분이 높고, 부패하지 않은 것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착상은 매우 기발한 것으로 평가받아서 이를 응용한 변기가 시중에 시판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분과 뇨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이 변소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분뇨가 비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한 것은 다이쇼 말기부터였다. 운반이나 시비의 노력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값이 싼 화학 비료가 보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분뇨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폐기물로 전락하게 되었다. 돈을 받고 팔아치웠던 분뇨를 돈을 주고 처리를 부탁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화학 비료가 흔하지 않던 전쟁 중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종전이 되자 분뇨는 완전히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아이누의 변소

일본의 변소를 말하면서 빼놓을수 없는 것은 '아이누'의 변소이다. 아이누 인은 원래 에스키모와 같은 종족으로 일본의 규슈, 가라후토 등 북쪽 섬에 흩어져 살던 원주민이다. 지금은 홋카이도 지방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

홋카이도와 같은 추운 지방에서는 겨울에 용변을 보면 분뇨가 그 자리에서 즉시 얼어 붙는다. 마치 고드름을 꺼꾸로 세워 놓은 것 같은 모양이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항문을 찌를 위험까지 있다. 때문에 아이누인은 변소에 갈 때 언제나 망치나 도끼를 휴대하고 간다.

아이누의 변소는 대체로 가옥의 북,서쪽 구석 집과 좀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이는 동쪽은 신이 사는 곳이므로 남쪽을 향해 잠을 잔 사람의 엉덩이 쪽이 변소의 위치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이누 인은 남녀 변소를 따로 만들고 여자의 변소는 남자 변소의 북쪽이나 서쪽에 두었다. 이때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해도 화장실에 갈때에는 쫓아갈 수 없는 풍습이 있었다. 변소를 신성한 도끼쳐로 생각하는 아이누 인의 독특한 풍속 때문이다.

아이누의 남자 변소는 네 개의 나무를 사각으로 땅에 박아 짚으로 앞 뒤를 고정시킨후 구덩이를 파서 그 위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판을 걸쳐 놓은 것이다. 물론 양 옆은 그냥 트인 체이다. 여자 변소는 남자들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둥이 세 개밖에 안된다는 점 외에는 이 역시 옆으로 나무를 묶어 주위를 짚으로 가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조악한 화장실이나마 가지게 된 것도 최근에 이루어진 일로서 원래 아이누 인에게는 변소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지금도 아이누 인은 일정한 변소를 두지 않고 숲속의 적당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용변 보기를 즐긴다. 구덩이가 차면 흙으로 덮어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아이누 인의 변소를 '아신투'라고 부른다. 이는 아이누인의 말로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 변소의 신을 '루 고로 가무이' 즉 '길의 신'이라고 부른다.



오키나와의 변소

일본 최남단의 오키나와 섬에서는 1908년 무렵까지 변소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변의가 느껴지면 바닷가에 나가 모래를 파내고 그곳에 용변을 보았다. 용무가 끝난 후 다시 그 자리를 모래로 덮고 돌아가면 파도가 와서 깨끗이 씻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변소를 설치할 만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500년 전,

중국의 명나라 성화 13년 무렵 조선의 거세수리는 사람이 표류해서 이 섬에 약 반 년 가까이 머문 일이 있었다.

거세수가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오키나와 섬에는 변소가 없었고 주변의 한 섬인 궁거도에 가서야 변소를 볼 수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도 결국 화장실 문화가 도입되었고 그런 후에 오키나와의 변소는 가장 특색있는 석조변소로 발전되었

다. 그것은 가로 1.2미터, 길이 2.8미터, 깊이 1미터 정도되는 장방형의 상자 모양으로, 다공질의 석회암으로 축조되었다. 지붕의 중간 부분부터 뒷쪽은 아치모양으로 되어있는 독특한 모양이며 내부의 바닥은 앞으로 느리게 경사를 이루게 하여 물이 안에 고이지 않도록 했다.

또 한가지 이 변소가 가지고 있는 특색은 변소에서 돼지를 사육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돌로 쌓은 앞계단에 올라 변을 보면 그 밑에서는 돼지가 인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돼지 변소는 중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오키나와 섬이 중국 대륙과 가깝다는 지리적 연관성을 고려해 볼때 중국에서부터 기원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수세식 좌변기의 보급

일본에 좌변기가 보급된 것은 2차대전후 주둔했던 미군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좌변기가 보급되면서 생겨난 많은 일들 중에 웃지 못할 일화도 많다.

좌변기를 처음보는 일본 사람들은 엉덩이를 걸치는 좌변기의 턱에 아예 발로 올라 앉아 변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도 어느쪽을 향해 앉아야 할지를 몰라 뚜껑이 젖혀진 뒷쪽을 향해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으로 앉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에는 물탱크가 별도로 머리 윗쪽 천정에 매달려 있어서 용변이 끝난 후 줄을 당기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줄을 까맣게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줄을 당기고는 갑자기 쏟아지는 물소리에 놀라 뒤도 뒤지 않고 장터처럼 밖으로 뛰어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기차에 변소가 설치된 것은 1890년의 일로 영국으로부터 수세식 좌변기가 설치된 열차를 수입하여 도오카이 도선에 배치한 것이 그 처음이었다.

일본 사람들로서는 당시 처음 보는 이상한 변기의 사용법을 몰랐던 까닭에 변기 위에 올라서서 그 곁에 있는 세면대 속에 용변을 보는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일어났다.

그 이전까지는 역사에 있는 변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열차가 역사에 닿을 때까지 참지 못한 사람들은 열차의 창문 밖으로 소변을 보거나 열차의 입구 계단에 매달려 변을 보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수세식 좌변기가 일반화된 것은 1964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였다.

새로 생긴 각 주택 단지에 수세식 좌변기가 설치되면서 종래 주그리고 앉는 화식 변기가 걸터앉는 양식 변기로 점차로 대체되었다. 수세 방식의 화식 변기가 일본에 처음 도입된 것은 메이지 시대의 문명 개화기에 재벌 등 일부부호의 가정에서부터였다.

과거의 일본 역시 변소를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서운 곳으로 생각해 왔지만, 지금은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용하기 편한 변소의 설치를 위한 노력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Homo Toilet